

전북도, 도민 제안 10건 특별법 특례 추진

온라인특례발굴실, 10건 선정
스마트농업·ESS 등 특례 발굴
전문가 심사 거쳐 활용성 인정
특별법 개정 반영 본격 추진

전북도가 도민의 아이디어를 전북 특별법 특례로 연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특례발굴실’에서 올해 상반기 접수된 제안 29건 가운데 정책 활용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특례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도민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도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특별법에 반영해 전복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전북연구원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은 도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새만금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과 수직농장 조성, ▲치유농업과 고령자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특례 마련, ▲농촌 빈집의 용도변경과 인허가 완화를 통한 청년창업·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친환경 차박·야영을 위한 규제 개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과 국비 지원 확대, ▲99년 장기 무상임대 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지역축

제 기간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전통·도시형 가옥을 활용한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 도입, ▲드론 배송 특별구역 지정과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농산물·의약품 배송 실증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겼다. 도는 선정된 우수 제안을 관계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가맹점에서는 전체 결제액의 36%가 기본소득으로 이뤄졌고, 61%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새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60%였다. 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은 41%로 읍 지역(20%)의 두 배를 웃돌아 소외지역일수록 효과가 컸다. 원자재를 지역에서 사들이는 비율도 51%로 1분기보다 7%p 올라 돈이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 군과 전북연구원, 대학이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회를 운영하며 가맹점 부족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함께 풀아왔다. 분기별 설문과 간담회, 현장 점검, 사용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수군은 ‘RED-FOOD 직구마켓’과 ‘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고 하반기에는 문화·복지 콘텐츠즈를 장터와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쓰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유등사회적협동조합, 풍

인구 4,202명 유입 정착 효과 가맹점 469곳 늘어 상권 활기 면지역 창업·생활서비스 확대 주민·상인 체감 70% ‘긍정’
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 등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키워 농산물과 육류를 배송·판매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지원’으로 면 지역 창업을 유도해 왔다. 8월에는 지역자활센터·농협과 손잡은 ‘온정장터’와 기아에서 지원 받은 차량으로 식품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연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과 무주군은 7월 중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대상 인구의 59%인 2만 8,416명(진안 64%, 무주 54%)이 접수를 마쳤다. 두 군은 8월 중 실거주 확인을 거쳐 7~8월분을 소급 합산해 8월 말 첫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정철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확정...8월 1일부터

전북 경선 15일 오후 원광대서
송영길 정청래 2김민석 3번 기호
최고위원 이성운 6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오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실시기로 최종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시행 일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순회 경선일정은 8월 1일 충남, 충북, 대전·세종, 2일엔 부산·울산·경남, 8일엔 제주·인천, 9일엔 강원·대구·경북, 15일엔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

울 순이다. 구체적으로 8월 1일 오전 10시에 충남, 오후 2시에 충북, 오후 5시에 대전·세종에서 실시하고, 2일 오전 10시에 부산, 오후 2시에 울산, 오후 5시에 경남, 8일 오전에 제주, 오후에 인천에서 각각 실시한다. 또 9일 오전에는 강원, 오후에는 대구·경북에서 실시하고 15일엔 오후 1시에 전남광주, 오후 5시에는 전북에서 실시하며, 16일 오전에 서울, 오후에 경기에서 각각 실시한다. 이와함께 당은 예비경선 후 실시한 기호 추첨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기호를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1번, 정청래 후보가 2번, 김민석 후보가 3번을 받았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일~16일 전국 순회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치른다. 사진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기호는 최민희 후보 1번, 김용 후보 2번, 김영호 후보 3번, 서미화 후보 4번, 한민수 후보 5번, 이성운 후보 6번, 박선원 후보 7번, 임미애 후보 8번으로 정해졌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도 일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학원 교습비 편법 징수 제재 강화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 발의
위반수익 2배 과징금 부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 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친척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다시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교습비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재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억제하



윤준병 의원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 기준으로 산정하고,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등록 교습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교육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영목기자

박희승 제22대 국회 전반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12개 지표 우수
공공의료 입법 성과 호평
후반기 산자중기위서 활동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



박희승 의원

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엄정하게 평가·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 기간중 의원 별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성과와 통과율, ▲국정감사 출석 및 성과, ▲예결위 및 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분류해 평가해왔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수 의료 공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망 확충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의전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까지 완수해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서는 실질적인 의정 성과를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12개 지표를 통해 전반기 의정활동을 스스로 되짚어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며, “수상을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격

려이자 초심을 잃지 말라는 엄중한 당부로 받들고, 후반기에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로 자리를 옮기는 박 의원은 민생 경제 현장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입법, 정부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대안 제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후반기 산자중기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고,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여름철 필수 교통안전 수칙

졸음운전 주의

차량화재 주의

빗길운전 주의

타이어 펑크주의

농진청 ‘시드볼트’ 세계 종자 보존 박차

첨단시스템 방식
100년 장기보존
농업 생물다양성 유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식량 안보 강화와 생물다양성 확보 위한 ‘농촌진흥청 글로벌 시드볼트(RDA Global Seed Vault)’ 전 세계 종자 무상 기탁 서비스가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글로벌 시드볼트’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제 종자 안전 저장고로서 영하 18도, 상대습도 40% 이하 환경에서 종자 50만점을 10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 무인 자동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글로벌 시드볼트’는 지난 200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연구연합회(CGIAR)가 전 세계 식물 유전자원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 ‘세계작물다양성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국제 종자



농촌진흥청은 식량 안보 강화와 생물다양성 확보 위한 ‘농촌진흥청 글로벌 시드볼트’ 전 세계 종자 무상 기탁 서비스가 추진 중이다. <사진=농진청>

안전 저장고로 지정됐다.

이에 ‘농촌진흥청 글로벌 시드볼트’는 전 세계 중요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 중이다.

현재 국내외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수탁받은 유전자원은 총 336,872 자원이다.

더불어 국제기구 세계채소센터와 아프리카벼연구소에서 기탁한 핵심 자원도 보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안전종복보존을 요청하던 관련 협약을 체결한 뒤 종자를 수탁하게 된다.

기탁된 종자는 블랙박스 형태로 보존되며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협약 초기 유효 기간은 5년이며, 협약만료 6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아프리카벼연구소 마리노엘 유전자원센터장(Head of the AfricaRice Genebank)은 “농촌진흥청 글로벌 시드볼트가 세계적 수준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식량 안보와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든든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고종철 센터장은 “최근 기후변화,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식물 유전자원 안전 중복보존이 중요해짐에 따라 ‘농촌진흥청 글로벌 시드볼트’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농협 순창군지부 ‘농심전심’ 열린사랑 전달

순창군가족센터·다문화 가족 참여 농업·농촌 체험

농협 순창군 지부는 그간 ‘농심전심 텃밭정원’을 일구며 ‘농심전심’ 사랑 기반을 다져오며 그 결실을 지난 23일 순창군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과 함께 나눴다.

특히 이번 농협 순창군지부 나눔은 △농업 가치 확산 △지역사회 구성원 소통 기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순창군지부와 순창군가족센터는 아이들과 함께 토마토, 참외, 오이, 가지, 파프리카 등을 직접 수확하며 흙의 의미와 수확의 기쁨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와 백일홍, 코스모스, 분꽃 등 계절 꽃이 어우러진 정원을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며 행복을 느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주)참프레, 상생 협력 강화

기업 성장 전략
금융 협력 방안 모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한)가 지역 대표 식품기업인 ㈜참프레(대표 김재윤)를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하며 지역 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농협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장길한 본부장은 지난 24일 부안군에 위치한 ㈜참프레 본사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경영진과 만나 최근 경영환경과 사업추진현황·산업 동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역 대표기업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기업의 성장 전략과 금융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 본부장은 참프레의 생산공정을 둘러보며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원가 부담과 소비시장 변화 등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또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다.

양측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장길한 본부장은“(주)참프레는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며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의 대표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지난 24일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대표 식품기업인 ㈜참프레를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하며 지역 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사진=전북농협>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소셜아이어워드’ 참여 2관왕

유튜브·인스타그램 수상
디지털 소통 역량 입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기관 유튜브 분야 대상과 인스타그램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지난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 참여해 대상과 최우수상 등 2관왕 수상 주인공이 됐다

전기안전공사 수상은 대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2관왕에 오르며 온라인 홍보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유튜브 채널은 전기사고 예방 수칙과 전기설비 점검 활동 등을 웹드

라마와 브이로그(vlog)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해 전기안전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스타그램 채널은 공식 캐릭터를 활용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근하게 제공하고, 댓글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끌어낸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조성국 홍보실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익한 전기안전 콘텐츠를 선보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셜아이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가 4천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15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지난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 참여해 대상과 최우수상 등 2관왕 수상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우수한 소셜 미디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민·관 협력 돌봄모델 협력체계’ 구축

진안·고창·해남·김제
당진 5개 지방정부

농식품부는 진안·고창·해남·김제·당진 5개 지방정부 ‘농촌 서비스 협약’(이하 ‘협약’)이 체결되며 돌봄서비스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가 체결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돌봄 활동 확산을 민·관이 협력해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선정은 △주민 의견 청취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계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립된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비스 종류와 기간 등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은 지난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 김제시·당진·진안군·고창군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먹거리와 생활돌봄을 비롯해 찾아가는 서비스(건강관리, 이동장터, 방문마음 등), 사회참여·관계강화 프로그램(안부확인, 지

역행사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주민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고, 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 등을 연계할 수 있어 농촌의 서비스 결핍 문제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전 전북본부 ‘고압 아파트 정전복구 모의훈련’

전기실 침수 시
신속 대응체계 점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윤여일)는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에 의한 정전 사고 대비 한 ‘고압아파트 응급복구 지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지난 22일 삼봉지구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집중호우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실이 침수돼 전력공급이 중단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은 △정전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사고 조사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합동대책본부 구성 △이동발전차 투입 및 응급지원 설비 설치 △아파트 자체 수전설비 교체 등 최종 복구 절차까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합동 점검했다.

아파트 내부 수전설비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유 시설로 고장



<사진=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발생 시 고객의 자체 복구가 필요하다.

한전 전북본부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대규모 정전 시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서 지원 가능한 응급 복구 방안을 모색했다.

한전 관계자는 “여름철 아파트 정전은 임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며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한전은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계자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전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기술혁신허브 협의체 중간점검

협력체계 강화 방안
향후 추진전략 논의

전북TP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개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기술혁신허브 협의체 출범과 중장기 허브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TP는 23일 군산은파밸리스에서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협의체 중간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중간점검 워크숍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TP 및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추진현황과 컨소시엄별 협력성격을 발표하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추진현황과 협력성과를 함께 점검했으며, R&D 분야에서는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현황과 투자·기업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기업지원 연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소민 기자

남원시, 여름철 안전망 가동 2(題)

폭염 건강취약계층 온열질환 밀착 관리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전국적인 폭염 특보 발령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 기관과 협력해 오는 9월 30일까지 추진되며 실시간 핫라인 운영으로 온열질환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남원시 폭염 TF팀과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해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소는 총 49명의 보건인력을 적극 활용해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폭염 대비 예방 물품(쿨토시)을 지원하는

집중호우 침수예방 하수시설 정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시설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수시설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내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사업을 통해 총 8.4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확보했다.

또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통수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토사와 퇴

적물, 각종 이물질 등 배수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아울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복구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총 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85개소를 완료했으며 배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시는 하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4년 성과 평가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계약 공정성·실효성 점검

완주군이 지난 4년간 시행해 온 ‘수의계약 총량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관내 업체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공정한 계약 기회 확보와 지역 업체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 수의계약 총량제를 처음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2021년 91.1%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6.4%로 5.3%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표 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관내 업체와 관련 협회·조합·단체의 만족도를 측정

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는 온라인 익명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문항은 수의계약 총량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비롯해 제도의 적정성 평가, 계약 기회 및 공정성 변화 체감도, 계약 총액 조정 및 개선에 대한 의견 등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짜였다.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접수된 현장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전자 재정관리과장은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계약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전북대와 ‘글로벌 장류축제’ 협력

외국인 유학생 참여 확대 협약 문화체험·공동 홍보 협력

순창군과 전북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군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전북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지역참여 확대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 축제인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순창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행사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비롯해 순창장류축제에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지원하고,



<사진=순창군>

유학생 중심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부스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에게 순창 관광지 할인 혜택과 장류축제 체험프로그램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전통 장류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순창군에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고병원성 AI 선제 방역 점검 강화

특별방역 전 예방활동 추진 가금농장 방역시설 집중 점검

남원시는 ‘26~2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시작 전 한발 앞선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매년 겨울철 반복되는 AI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 바이러스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 농장의 취약점을 미리 개선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다.

추진기간은 6~9월까지이며, 동절기 출입이 어려웠던 관내 가금농장에 직접 방문해 농장 소독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조망 상태, CCTV, 전실·방역실 등 필수 구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특별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완벽히 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시설 정비와 농장 주변 소독에 철저히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만경강 교량 ‘생명살리기 구조물’ 설치

용봉교~봉신교 현장 점검 마음 씬 벤치 등 추진

완주군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근 만경강 용봉교에서 봉신교 구간을 찾아 생명살리기 구조물 설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해당 교량에 위기상담 안내전화 현수막을 게시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군민들이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누구나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씬 벤치’를 설치해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과 1인 가구,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점검에 나선 이종훈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자들은 고위험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 부군수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생명존중 환경 조성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군민 누구나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3.0 추진체계 강화

완주군이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지난 23일 완주군은 군청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논의·자문하는 기구로,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친화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진행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현재까지 추진한 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표준조사 결과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보완하고, 향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역 발효과학 인재 진로탐색 대학탐방 지원

순창군 출연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24일 순창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 발효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효과학 동아리 고교생 진로탐색 대학탐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탐방에는 순창고와 제일고 발효과학 동아리 학생, 지도교사, 진흥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를 찾아 대학 교육환경과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며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대학 및 학과 소개를 통해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대운동장과 본관, 글로벌라운지, 노천극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대학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이어 진행된 재학생들과의 진로·진학 멘토링에서는 학과 선택과 대학생활, 입시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학 교육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재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흥원 이사장인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대학탐방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발효·식품·바이오 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하계수련회 “자립 의지 북돋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지회장 심동택)가 지난 24일 삼례읍에서 장애인과 직원, 내빈 등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하계수련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체장애인이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자립 의지를 다지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수련회는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오찬과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이번 하계수련회가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기대한다”며 “완주군은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복흥·쌍치·구림 농촌혁신 본격화

농촌협약 체결...270억 투입 정주 개선·문화 복지 복합 조성

순창군이 지난 23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복흥·쌍치·구림 농촌공간 혁신에 나섰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공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 투자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장관과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전국 16개 협약 대상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내빈 환담을 시작으로 △환영사 △경과 및 계획 보고 △우수사례 발표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순창군은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복흥·쌍치·구림 지역을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전국 제일의 상생자족형 농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을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은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복흥면에 문화여울림센터 건립과 시니어 야외공간 조성, 쌍치에 세대통합공간 조성 및 다목적 야외쉼터 및 진입보행로 개선, 구림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총 270억 규모의 굵직한 공간개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의회, 군정 업무보고 돌입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부서별 정책성과 집중 확인

제10대 완주군의의회(의장 성중기)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과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호)는 △24일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27일 행정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문화역사과·관광축제과) △28일 문화관광복지국(체육공원과·사회복지과·경로장애인과), 보건소, 도서관 사업소 주요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성)는 △29일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농업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산업복지과) △30일 경제

의 방향과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호)는 △24일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27일 행정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문화역사과·관광축제과) △28일 문화관광복지국(체육공원과·사회복지과·경로장애인과), 보건소, 도서관 사업소 주요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성)는 △29일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농업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산업복지과) △30일 경제

산업국(축산지원과), 건설안전국 △31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영)는 31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며 의정 지원체계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의의회는 오는 8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의결한 뒤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의의회, 대산면 스마트팜 토취장 타당성 점검

시의회 경제농정위 현지답사 성토재 확보 경제성 등 살펴

남원시의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이기열)는 7월 24일,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및 수덕리 일원에 추진 중인 ‘एको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성토를 함에 있어 외부 토사 반입 대신 인근 토취장을 개발할 때 얻을 수 있는 예산 절감 효과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남원시 스마트농생명과)로부터 현장에서 듣고 확인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의 성토재 확보를 위해 인근 대산면 신계리 일원 토취장 부지 토지 51필지를 40억원에 취득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토취장을 개발하여 확보가능한 성토량은 40만㎥이다.

위원들은 단순히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 지형과 이동 거리 등을 눈으로 확인하며 이 사업이 ‘남원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과 장마 및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 설치 및 사면 안정성 확보 등 수해방지를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열 위원장은 “이번 현지답사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조성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이고 단순히 시의 재정만이 아닌 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자리였다”며 “해당 사업이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시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기자



고 유성엽 의원 뜻 잇는다 추모위, 정읍시에 300만원 기탁

고 유성엽 의원 추모위원회가 고인의 서거 1 주기를 맞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 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4일 정읍시청에서 서순탁 추모위원장과 추모위원회 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관계자는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분들의 소중한 뜻이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돕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고인을 기리는 뜻을 나눔으로 실천해 준 추모위원회와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광활면,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에 폭염예방키트 배부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연일 마른장마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로당을 찾아 폭염예방키트 배부에 나섰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등 21개소를 방문해 폭염예방키트를 배부하고, 어르신들에게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부터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냉방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운영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이곳에서 쉬고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 마을 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순순시 광활면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복날맞이 건강충전 안부살핍’ 추진

취약계층 어르신에 식사 및 음료 나눔

부안군 행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복날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등 80명을 대상으로 전복삼계탕 점심식사와 건강음료(두유)를 지원하는 복날맞이 건강충전 안부살핍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촘촘한 돌봄 활동으로 마련됐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직접 모시고 행사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지원했으며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각 가정까지 귀가를 함께하며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세심하게 살폈다.

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영양보충을 위한 건강음료(두유)도 함께 전달하며 폭염 속 건강관리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혼자 있다 보니 밖에 나올 일도 많지 않은데 직접 찾아와 주고 식사 확인하는 촘촘한 돌봄 활동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양해승·김홍우 공동위원장은 “폭염 속에서는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시설 보호아동 위한 ‘예술여행’

심리·정서 지원 활동

고창군이 지난 23일 저녁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고창행복원과 요엘원의 아동 및 인솔교사 등 75명을 대상으로 마음가득 행복충전 신나는 예술여행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과 연계해 평소 대형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문화 활

동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스토리텔링 미술쇼를 시작으로, 시각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주는 힐링 버블쇼, 아동들의 활력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활력충전 무예공연 등 아동 참여형 콘텐츠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며 마음껏 소리 지르고 웃는 가운데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중한 보호대상



아동들이 소외됨 없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중앙동 지사협, 나눔문화 확산

군산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성호와 공공위원장 김중훈은 24일 중북을 맞아 관내 경로당 7개소를 찾아 삼계탕과 수박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속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이웃간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준비한 삼계탕과 수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으며, 함께 안부를 나누고 건강을 기

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성호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든든한 이웃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중훈 공공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의체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 금산면 청년회, 제조작업 봉사활동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청년회 소속 이원오씨와 청년들이 지난 22일 원평천 일원과 주요 도로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제조작업 자원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도 묵묵히 제조작업을 추진한 그들의 손길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물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넘어, 청년의 열정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아름

다운 사례로, 원평천 주변은 무성한 풀로 인해 주민들의 발걸음이 불편했으나, 제조작업 이후 산책로와 도로변은 한결 정돈된 모습으로 변모해 주민들은 “마음이 한층 밝아지고, 걷는 길이 편해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미정 금산면장은 “앞으로도 청년회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나눔과 참여가 이어지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임실자봉센터 ‘행복한 나눔터’ 김치나눔 봉사활동 펼쳐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는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지속프로그램 지원사업인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눔터 운영’을 임실 남·여성의용소방대, 임실군여성봉사회 등 10개 자원봉사단체 30여 명의 봉사자와 참여해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실군수어동역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자원봉사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관내 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100여 세대에 열무·배추김치가 전달됐다.

이 날 펼쳐진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눔터’ 프로그램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시·군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인시설, 아동센터를 위한 빵나눔 봉사활동과 여름철 김치나눔 봉사활동, 추석 명절음식 나눔활동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 동산동, 착한가게 3곳 신규 가입… 따뜻한 나눔 이어져

익산시 동산동에 착한가게 3곳이 새롭게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명경·심현무)는 24일 △대발집포차(대표 이정례) △소망한의원(대표 윤영록) △새천년자동차공업사(대표 정창균)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발집포차는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안주를 선보이는 실내 포차이고, 소망한의원은 20년 넘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온 의료기관이다. 새천년자동차공업사는 친절하고 꼼꼼한 차량 정비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돕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한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명경 동산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 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전북타임스연중 캠페인

〈一事一言〉



시련을 자양분 삼은 결기, 전북의 미래를 일으키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안호영 의원의 벼랑 끝 단식... 지역 발전 향한 묵묵한 헌신을 응원

정치인의 참된 가치는 승리의 환호 속이 아니라 시련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증명된다. 순풍을 탈 때 선량(遷良)을 자처하는 이는 많으나, 불의와 원칙 훼손이라는 거센 풍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정치인은 드물다.

지난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에게 그야말로 흑독한 시련의 계절이었다. 당내 경선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불통의 벽이 도민의 열망을 가로막았을 때, 그가 선택한 길은 적당한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다. 그는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단식 농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원칙 훼손에 항의하며 단식을 이어갔고, 결국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치적 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던 그의 결기와 진정성은 많은 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정치인 안호영의 진가는 선거

가 끝난 후, 그 쓰라린 상흔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대개 가혹한 경선 폭풍을 겪고 나면 패배감에 사로잡혀 정쟁의 늪에 빠지거나 앙금을 남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홀출 텨고 일어나 곧바로 민생과 의정활동의 현장으로 복귀했다. 자신에게 안겨진 정치적 상처를 뒤로한 채, 완주·진안·무주 지역구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매어 댔다. 개인의 서운함보다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앞에 두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서를 몸소 보여준 것이 다.

시련을 자양분 삼아 현장으로 돌아온 그의 발걸음은 더욱 치열하고 정교해졌다. 최근 진안군이 연이어 거둬들인 국비 확보 성과와 공모사업 연속 선정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수자원공사의 댐 지원사업으로 물꼬를 튼 뒤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으로 확장 연결해 4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완성해 낸 것은, 그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며 쌓아온 정책적 안목과 중앙정부를 설득해 내는 원숙한 기획력이 결합한 값진 결실이다.

뿐만 아니라, 용담댐 건설로 수십 년간 규제와 피해보상에 신음하던 지역 주민

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수변구역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건립을 비롯한 산림·수자원 연계 사업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고 있다. 나아가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라는 지역의 초대형 숙원 과제를 향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모습은, 그가 왜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인지를 증명해 준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동력 삼아 삶을 바꾸는 일이다. 불공정 앞에서는 목숨을 걸 만큼 서슬 푸른 강단을 보여주고, 지역민과 민생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진 자세로 묵묵히 땀 흘리는 안 의원의 행보는 목직한 감동을 준다.

벼랑 끝 단식 투쟁에서 보여준 원칙에 대한 집념은 이제 전북과 완주·진안·무주를 향한 집요한 애정과 정책적 성과로 승화되고 있다. 시련을 겪으며 한층 더 깊어지고 강해진 정치인 안호영. 불통과 불공정에 타협하지 않던 그날의 의기를 가슴에 품고,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쉽 없이 직진하는 그의 당당한 발걸음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보여주기식 해외연수는 끝내고,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포상성 국외연수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국외연수는 선진 교육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자칫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한 해외출장으로 비쳐질 경우 도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교육위원회의 이번 지적은 단순히 해외연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연수의 본래 목적과 공공성을 되살리자는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외유성 출장과 관광성 일정, 부실한 결과보고서 등으로 국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전북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떠나는 연수라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정책에 반영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될 수 없다.

교육위원회가 연수 대상자 선정부터 일정의 적정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포상이나 관행 차원의 해외연수는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해외연수는 특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책 역량을 키우는 공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지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연수 대상자는 어

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방문기관은 왜 선택했는지, 연수 이후 어떤 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됐는지까지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출장보고서 역시 형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을 담은 실질적인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국외연수는 예산을 쓰는 행정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성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해외에서 보고 들은 선진 사례가 전북교육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연수는 아무리 화려한 일정이었다 하더라도 실패한 연수일 뿐이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전북교육청도 국외연수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연수의 기획부터 실행,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민은 해외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 연수를 통해 전북교육이 무엇을 바꾸고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묻고 있다.

국외연수의 가치는 여관에 찍힌 출입국 도장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는 포상성 해외연수라는 낡은 인식을 완전히 걷어내고, 성과와 책임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연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사랑 / 안도현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대구 대건고를 졸업하고 원광대를 거쳐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했다. 국어교사를 하다 1997년에 퇴직 후 전업작가로 활동했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설 시 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7월 27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반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우리 가게도 특수가연물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도 특수가연물 사업장이었나요?"

현장에서 사업장 관계인들을 만나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특수가연물'이라는 용어는 다소 낯설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영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특수가연물 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은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면 대형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동네 타이어 판매점과 폐지를 보관하는 고물상, 물티슈 제조업체처럼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장도 일정 수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특수가연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가연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가연물보다 불길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며 번질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품명별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일정한 저장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 절차를 늘리기 위한 규제라 아니라 대형화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이어다. 타이어는 합성수지류에 해당하며 3,000kg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특수가연물로 관리된다. 폐지(넙마 및 종이부스러기)와 물티슈 제조에 사용되는 부직포도 각각 1,000kg 이상 보관하거나 저장하면 대상이 된다.

최근 전북에서도 우드칩과 톱밥을 보관하던 사업장에서 자연발화와 기계 과열로 대형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다. 특수가연물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다른 지역의 이야기만 아니다. 지난해 겨울 전주완산소방서는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면서 법에서 정한 저장·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관계인은 특수가연물을 취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부 기준까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안전기준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만 있지 않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주완산소방서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하며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사업장 관계인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우리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을 초과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품명별 구분 보관과 적정 적재기준 준수, 화기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팀 소방위 김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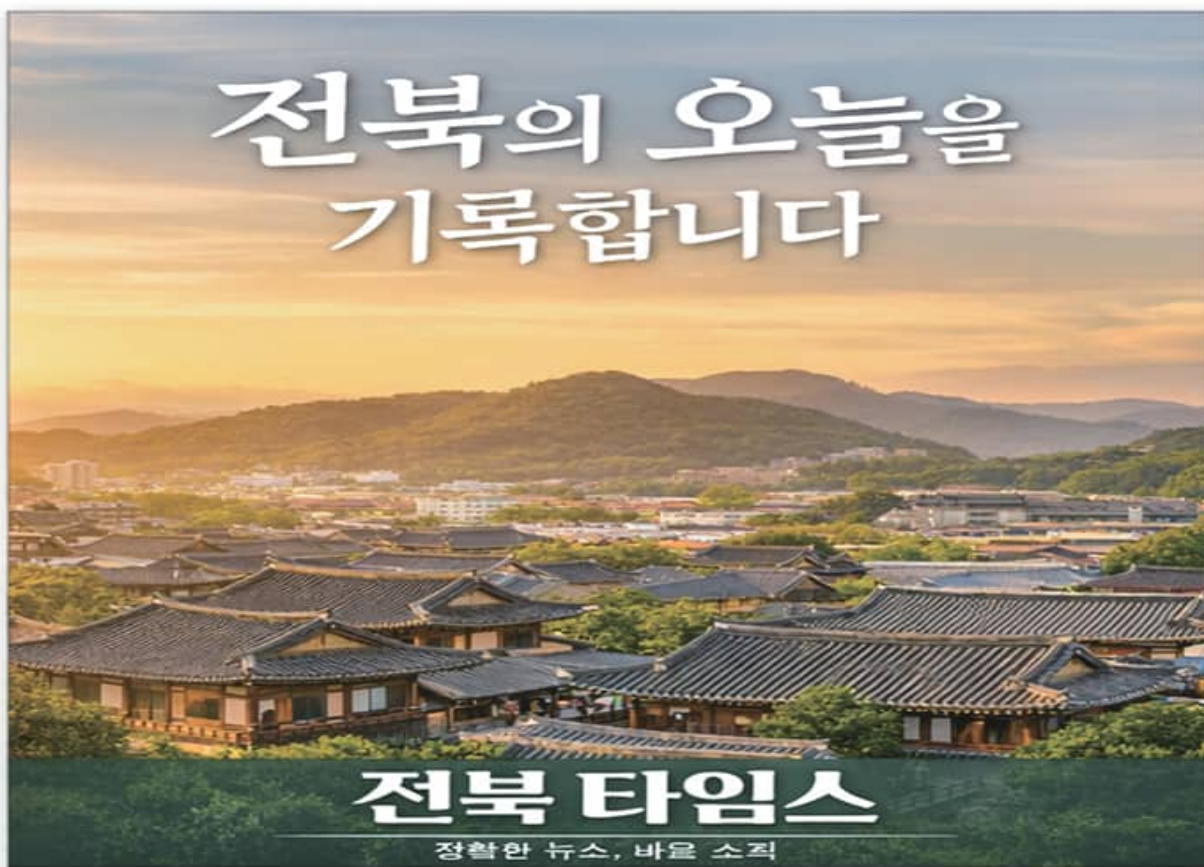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김제시, 자연·사람·동물이 공존하는 스마트·친환경 축산 실현

김제시가 자연과 사람,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353억원 규모의 친환경 중심 축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깨끗하고 건전한 축산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선진 축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한 환경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퇴비로 활용하고, 이 농지에서 생산된 풀사료를 다시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는 '자연 순환형 축산 모델'을 구축해 지역 내 탄소 감축과 친환경 축산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식품 선호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적극 도입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기·계란·우유 등 주요 축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관리해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 위생 향상을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지속가능 축산 생태계 구축 박차

■ 스마트 기술 기반의 미래 축산 시스템 조성

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스마트 축산은 ICT(정보통신 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을 축사에 적용하여 가축의 생육 상태, 건강 상태, 환경 조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청정축산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시는 3개 농가(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개)를 선정해 축사 개축 및 개보수, ICT 융복합 장비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가축 사육 여건 개선과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 시설의 지속적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한우산업 육성 지원 기반 강화

한우 생산비 증가 수입 축산물로 인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는 6억원 규모의 한우산업 육성사업(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한우 혈통등록 지원사업, 한우 천자검사 지원사업,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 개체를 체계적 관리로 관리하기 위해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사업, 한우 천자검사 지원사업,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성 개선과 한우 품질 고급화를 목표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과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 명품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가축 개량 축진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시는 앞으로도 한우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김제 한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폭염 대응·부가치 향상 통한 축산 경영 안정 도모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보험제도를 활용해 축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로 가입비의 75%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는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생산성 하락 및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폭염 대응책으로 2억원 규모의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및 폭염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전에 감지 장비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파악하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대형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사 내부의 시스템 전원 상태와 사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19억원 규모의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사업, 축산기자재 지원사업과 고품질 원유 생산을 위한 낙농펠드 지원사업, 젖소능력 개량사업,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사업 등 낙농 관련 사업, 생태계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양봉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축산농가의 지속가능 축산업을 위한 환경 개선

시는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총 26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등 총 12개 축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퇴비사 신속,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농가 맞춤형 환경개선 시설 도입 시 시설·장비 구입 자급에 대해 연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경개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축산문화 정



작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과의 연계로 생산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축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리방식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속발효 및 액비순환 시스템을 통해 축사 내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함으로써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기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축산물 안전성 확보 지도 강화

시는 최근 축산물 위생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유통 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원사업과 정기적인 위생점검, 그리고 (소)이력 관리에 관한 이행점검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등 총 5

개 사업 4억 6천만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의 (소)출생 신고 및 귀표 부착 등 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농가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탁기관(축협 등) 및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3명)과 연계해 축산물 소비가 많은 명절 등에 축산물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분기별 이력 관리 합동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거짓 이력 신고, 고의 귀표 훼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빈틈없는 축산물 관리망을 구축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가축전염병 발생 대응과 비상상황 해체 이후 방역 추진

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비상 방역상황실'을 운영했다.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방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김제시에서도 3차례의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시는 발생농장과 주변 가금농장을 포함하여 총 29농장 및 약 214만수를 신속하

게 살처분하며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역 조치도 이루어졌다. 확진 즉시 신속한 살처분을 완료한 후 농장 앞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오염원 반출을 차단하였다. 또한 농립축산식품부로부터 방역차량을 지원받아 주변 도로에 소독약을 집중살포하여 차량에 의한 교차 오염을 방지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중심으로 10km 반경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여 가금과 분뇨 등의 이동을 전면 제한했으며, 추가 발생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를 추진했다.

지난 5월 중 추가 발생이 없고 지역 내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어 방역지역과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현재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159억원을 투입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안정 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방역시설 확충 및 농장 의무사항 준수와 같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뒤 가축을 입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 자연·사람·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을 구축

하기 위해 환경, 방역, 동물복지 등 전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건강한 축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노후 축사시설 개선, 악취 저감 기술 도입, 분뇨 처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축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적인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내 가축전염병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동물 학대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식생활이 고급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축산물 소비 증가와 더불어 품질, 위생,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자연과 인간,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농업·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온봉기 기자